

한국 문화정책 형성 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민족문화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7월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 민족문화 이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심층연구 제1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서는 본문 172면과 참고문헌, 현장 인터뷰 40면으로 구성되어, 제1장 서론으로 시작하여 제2장 민족문화 이념 전개와 일제 강점기 문화예술, 제3장 해방 이후 문화정책과 민족문화, 제4장 5.16이후 문화정책과 민족문화, 제5장 근대화 시기의 문화정책과 김종필, 제6장 논의를 마치면서 편으로 짜여졌다. 특히 제4장에서 당시 군사정부시 실세로서 그리고 국무총리 시절에 윤정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기록과 증언으로 밝히고 있으며,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김종필과 국제음악제’ ‘예그린악단 창단’ ‘애국선열조상 건립’ ‘민족기록화사업’ 등의 사업 추진 배경과 ‘김종필과 문화예술’을 통해 윤정의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 재정리하여 JP의 문화예술 활동업적을 소개한다.

■ 김종필의 역할 연구 배경과 필요성

1960-1970년대 민족문화 중흥을 표방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형성기에 김종필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김종필은 그 시대의 정치인들과 다르게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또 문화예술인들과 가까웠으며 나아가 자신이 문화예술적 감성과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치적 실력자였던 그가 당시 문화예술 정책과 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의 초기에 국무총리를 역임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정책 형성 시기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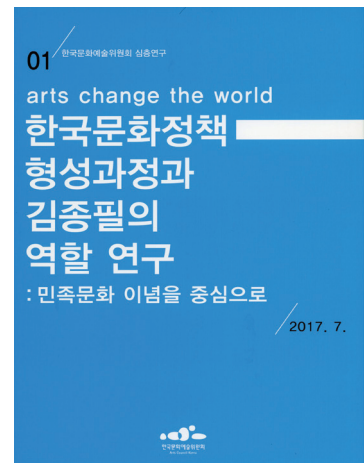
사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김종필의 역할은 1970년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5.16 직후인 1961년, 안익태 등이 동원된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음악제를 주도했으며, 민족기록화 사업, 애국조상 건립 사업 등과 같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획기적 전기가 되는 문화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예그린악단 창단 및 윤영과 같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업

도 그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인물의 국가적 상징화 사업에도 그는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주도적으로 5.16 민족상을 제정하여 국가와 민족에 기여한 인

물들을 선정하여 시상한 사업도 문화정책적 요소가 들어 있다. 한마디로 그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의 문화정책에는 나름 그의 영향력이 깊었을 것이므로 그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련성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 5.16 군사정부 초기의 문화정책과 사업

- ▶ 문화행정 체계 개편 : 공보부 독립 승격 및 업무 조정 (영화, 공연, 연예, 정기간행물,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추가)
- ▶ 공연법, 영화법,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예총 출범



▶ 국제영화제 개최 : 안익태 등이 주도하는 5.16 1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우리 음악의 국제적 '창'을 열음. 1963년까지 2번 개최. 1962년 공보부公報部 주최로 제1회 국제음악제가 개최 되었는데 이 음악제의 메인 프로그램 「교향곡의 밤」 때 안익태安益泰는 KBS와 서울시향 및 육해공군의 군악대 등으로 대편성한 연주단이 연주하는 교향환상곡交響幻想曲 "코리아" 를 비롯해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등을 지휘하였다. 1963년 5월 제2회 국제음악제에서 안 익태의 지휘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을 연주할 때, 황병덕黃柄德·이인범李仁範·김혜란金惠蘭·황영금黃英金이 독창자로 출연하였다.

이 음악제에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7,000만원의 예산이 든 국제행사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음악인들이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그 결과 유명 음악인이 배출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제3공화국의 민족문화 정책과 사업



이순신 장군 동상 제작 현장



홍릉으로 옮겨진 세종대왕 동상

-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 문교부 등의 반대로 추진 무산됨. 1970년대에 국립극장, 시민회관 건립만 실현됨.
-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의 전승과 계발을 추진하는 사회단체. 문화시설 확충, 문화활동지원, 문화행정 일원화 등 건의. 추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으로 계승.
- 애국선열조상 건립사업 : 이순신 동상(박정희 대통령 회사), 세종대왕 동상(김종필 총리 회사) 윤봉길 동상 등.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위원장 김종필)'를 발족하여 민족문화 실현의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된 이 건립사업은 1968년 4월27일 광화문에서 제막식을 통해 세워진 이순신 동상(조각 김세중)이 시작이었다. 이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로 네거리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고 외경畏敬의 대상이 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일주일 후 세종대왕 동상(조각 김경승)이 덕수궁 중화전 앞에 세워졌다. 애국선열조상건립은 김종필의 발의로 추진되었다. 그는 영국에서 넬슨 제독,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일체감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 나라의 분열을 극복하는 국민정신이 생기는 것에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 민족기록화 사업 : 5.16민족상 주최, 공보부 교육부 국방부 지원, 1967년 경복궁 미술관에서 55 작품 전시(김종필,



장두건 -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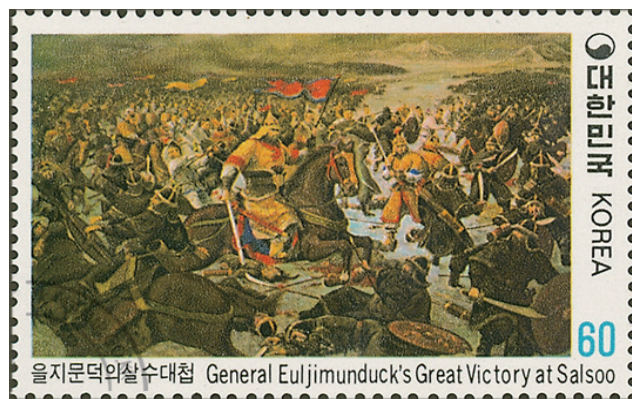
이은상, 박종화와 고증위원들이 주제 선정-동학군 의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6.25전쟁과 월남전 파병 등 500호 25점, 1,000호 30점)

민족기록화 사업을 주도한 김종필은 외국에서 과제를 얻었다고 증언하며, 민족사적 사건을 회화繪畵로 형상화하여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심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특히 창작여건이 빈약했던 우리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고 지원하는 성격으로 우리 미술 발전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그린 악단 창단: 1961년 12월 민요의 현대화, 민족예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예藝의 어제를 그리고 오늘을 위하여'를 표방하며 창단, 복합 음악회 공연. 1962년 9월 전 5경의 "추석놀이"를 가지고 5회의 공연을 가졌다.

예그린은 첫 작품으로 <삼천만의 향연>(1962.1)을 시민회관에서 상연함으로써 일반에게 알려 졌다. 이 공연 형식은 민요, 판소리, 농악, 민속무용에서부터 합창과 양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극적 줄거리 없이 엮은 '종합무대 구성'이었다. 김생려가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있었던 제1차 예그린악단은 뮤지컬도 악극도 아닌 이러한 공연을 6회 상연하고, 1963년 5월 해산되었다.

우리나라 뮤지컬의 본격적인 시발은 소위 2차 예그린악단의 <살짜기 읊서예>(1966.10)로 인정되고 있는데, 작곡과 지휘를 최창권이 전담했다. <살짜기 읊서예>는 고전



김창락 - 개천도 1967

소설<배비장전>을 각색한 것이므로, 전문배우가 없었기 때문에 패티김, 광규석, 김성원 등 연극, 음악, 무용계의 전문가들과 인기 연예인이 참여했다. 짧은 공연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작비를 상회할 만큼의 흥행 성적을 올렸다.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예진흥원 설립과 문예진흥기금 설치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

■ 김종필의 문화예술과 정치(결론)

김종필은 그의 글이나 인터뷰 등에서 우리 민족의 재기才氣, 감수성, 창조성 등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그동안 겪은 역사적 불행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진, 선, 미에 대한 전통적 가치체계를 상실한 것 아닌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역적으로 말해서 그는 예술성, 감수성, 창조성이 어우러져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지향하며 그것이 정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비롯한 예술은 그의 정치활동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예술을 정치라고 인용하는 것은 예술이 아름다움을 동경憧憬하듯이 정치도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한다는 점에서, 즉 이상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세계에서 시련과 영광을 반복해 경험한 그인 만큼 험악한 권력 투쟁이 아닌 이상을 향해 함께 나가는 것을 꿈꾸었을 수

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종필이 특별히 예술을 지향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술 자체에 대한 이해나 탐닉이 아닌 정서를 안정시키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예술은 혁명은 아니다. 그가 진선미의 전통적 가치체계의 조화를 강조하는 데에서도 그러한 그의 사고의 일단이 보여 진다. 적어도 예술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실험이 아닌 조화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종필의 예술사랑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거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향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김종필의 인식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그가 문화예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직,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그린악단, 애국선열조상건립사업, 그리고 민족기록화사업, 나아가 민족문화중흥 정책에도 그의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태도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민족주의가 보편적이었으며 정치나 민족문화가 하나의 이념체제로 존재했던 시기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근대화로 인한 갈등과 균열이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좌절로 인한 분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었으며 조화로운 질서의 유지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에 목말라하던 시기였다. 김종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문제와 과

제에 직면해 있었다.

1972년 유신체제의 시작과 함께 펼쳐진 민족문화중흥을 표방한 문화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의 긍정적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내면화하고 민족공동체를 지향한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민족문화중흥 정책은 근대와의 만남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공간의 혼란과 갈등을 지나 한국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민족문화 이념을 위로부터 현실에 구현시키려는 종합적인 시도였다. 김종필은 이 시기의 문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사업은 그의 존재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필은 우리나라 문화정책 형성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김종필과 민족문화, 문화예술정책' 인터뷰 1(요약)

•대담: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 장관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 장관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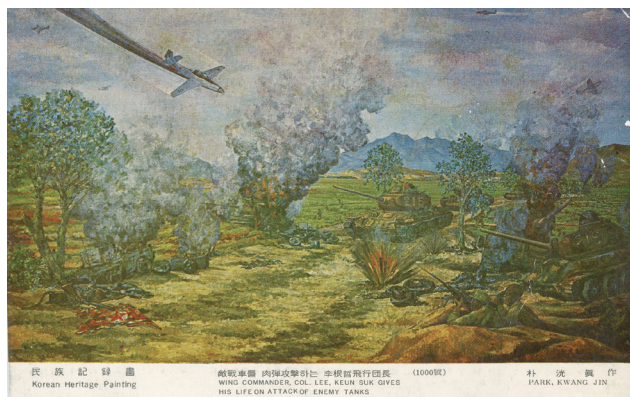
조선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 이사
민주공화당 사무차장
무임소장관, 주 칠레 대사,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문화공보부 장관, 제9대 국회의원

문: 김종필 총리께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 분이였나요?

답: “김종필 총리께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각종 악기를 다



김홍수 - 3.1독립운동 1967



박광진 - 적전차를 육탄공격하는 이근철 비행단장 1967

루시고 일요화가회 활동에서 보듯이 그림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문화예술인들과 친분도 깊으셨어요. 외국 문물을 접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의 상황과 접목하시는 안목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의지 또한 강한 분이었어요. 두 차례의 ‘타의반 자의반’ 외유 동안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돌아보고 얻은 지식과 느낌을 중요한 자산으로 하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실현에 노력하신 분입니다. 예그린악단의 창단이나 민족기록화 사업 같은 것을 보세요.

두 사업 모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지요. 그 분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창조적으로 계발·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문 : 김종필 총리의 문화예술 정책에서의 업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 : “그 분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건립을 비롯해서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사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들도 위인들의 얼굴을 조각하려 한 적이 있었어요. 문화유산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요. 그 만큼 나름대로 문화예술 정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실현하려 하셨지요. 민족기록화 사업은 전적으로 그 분이 주도하신거구요. 애국선열 동상 건립 사업도 그 분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요.

문 : 1972년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주무 장관이셨는데 그분의 역할은?

답 : “당시 5개년 계획의 재원 확보가 큰 문제였는데,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총리와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얼마면 되겠느냐 하며 예산을 만들어 주셨지요. 두 분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문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제1차 문예진흥5개년 계획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필과 민족문화, 문화예술정책' 인터뷰 2(요약)

• 대담 :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경력〉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장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예술의전당 사장,
영화진흥공사 사장
문화부 문화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문 : 1970년대 김종필 총리 시절에 이루어진 주요 문화예술 정책은?

답 : 그 당시 1972, 1973년에는 제1차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과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종필 총리),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문예진흥기금 모금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지요.”

문 : 당시 문화예술 정책에서 ‘민족문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

답 :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이나 문화예술진흥원에 민족적 주체의식과 민족문화가 강조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은 일반 문화예술에 많이 지원되었지요. 나라 문화가 창달하려면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체성은 국민정신, 주체적인 역사 민족사관을 세워야함을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실현되지 못했지요.

문 : 민족기록화 사업, 예그린 악단은 어떻게 추진된 것이지요?

답 : “민족기록화는 김종필 총리의 확고한 주관, 방침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예그린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 음악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1962년대에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만들고, 예총 건립과 시민회관 건립, 세계민속축제에 참가시키는 등 예술활동이 많았는데, 그 때 그런 문화예술 시책들은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JP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김동호**